

CHINESE ANCIENT HISTORY · JAPANESE ORIENTAL HISTORIOGRAPHY

일본 역사학계의 황건적의 난(黄巾の乱) 해석 연구사

농민반란·종교운동·민중운동·지역사회 재편·후한 국가 해체·군벌 형성이라는 여섯 개의 분석 틀을 중심으로

「蒼天已死 黄天当立
歲在甲子 天下大吉」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연구보고서 · 2026년 7월

문서 개요와 핵심 결론

연구 목적. 이 보고서는 후한 말 황건적의 난을 일본 동양사학이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를 연구사적으로 재구성한다. 메이지기의 사료학·왕조정치사, 전전기의 제도사와 동양사 통사, 전후의 계급투쟁·농민전쟁론, 교토학과 계열의 공동체·저항운동론, 1980년대 이후의 지역사회론과 종교사, 최근의 재해·유민·지방행정·네트워크 분석을 서로 구분하면서도 연속선 위에 놓는다. 전문 연구의 실재 여부와 서지사항은 국립국회도서관(NDL), CiNii Research, 대학 리포지터리 등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핵심 판단

첫째, 일본 학계의 황건 연구는 단일한 ‘농민전쟁론’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전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강했지만, 거의 동시에 종교적 동원, 지역공동체의 윤리, 궁정 내부 연계, 청주·서주의 지역전통을 강조하는 수정이 전개되었다.

둘째, 오늘날 가장 설명력이 높은 정의는 황건을 태평도적 구제와 종말론을 핵심 동원기제로 삼아 소농·유민·하층 병사·지역 무장집단·일부 관료 및 궁정 인맥을 연결한 다중심적 민중 정치운동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빈곤을 기반으로 했으나, 경제 원인만으로 조직의 확산과 희생의 강도를 설명할 수 없다.

셋째, 184년의 봉기는 단기간에 진압되었지만 ‘황건’이라는 명칭은 이후 여러 지역 집단에 재사용되었다. 따라서 184년 태평도 중앙조직과 190년대 청주황건·흑산·백파 등의 직접적 조직 연속성을 자동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넷째, 황건은 후한 붕괴의 유일 원인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군사·행정 능력 저하가 드러난 임계점이었다. 진압 과정에서 지방관, 호족, 의용군 지휘자에게 병력 동원권이 집중되면서 군벌 형성과 삼국시대의 정치구조가 촉진되었다.

구성

번호	장	주요 내용
①	사건 개관	정치·경제·사회·종교적 배경, 장각과 태평도, 구호, 전개·진압·여파
②	일본 학계의 시대별 연구사	메이지, 전전 제국기, 전후 마르크스주의, 1980년대 이후, 최근 연구
③	주요 해석과 학설	농민반란·종교운동·지역사회·국가 붕괴·군벌 형성, 태평도와 오두미도
④	핵심 연구자와 문헌	다다 겐스케, 가와카쓰 요시오, 마쓰자키 쓰네키, 후쿠이 시게마사 등
⑤	중국·한국·서구 학계 비교	중국의 농민기이론, 한국의 정치·재정·사회사, 서구의 종교사회사와 국가해체론
⑥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강점·한계·논쟁점, 디지털 인문학·환경사·네트워크 연구 제안

① 사건 개관

1. 후한 말의 정치적 조건

황건적의 난은 184년(광화 7년·중평 원년) 2월, 장각(張角)과 그의 두 동생 장보(張寶)·장량(張梁)이 이끄는 태평도(太平道) 조직이 기주·예주·형주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 봉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건은 184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세기 후반 후한의 중앙정치·지방행정·재정·민생이 누적적으로 불안정해진 결과였다.

정치적으로는 어린 황제의 즉위가 반복되면서 외척과 환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었고, 환관과 결탁한 매관매직 및 지방관 인사의 왜곡이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당고의 금(黨錮の禁)은 청류 관료와 지방 명사층을 정치적으로 배제하여 중앙 정부가 지역 엘리트와 협력할 통로를 약화시켰다. 다만 환관을 단순히 ‘부패 집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마쓰자키 쓰네키코(松崎つね子)가 강조했듯 태평도와 환관 주변 인물의 접촉은 봉기가 궁정 바깥의 빈민 폭동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균열을 이용한 정치운동이었음을 보여준다.^[1]

2. 경제·사회·환경의 복합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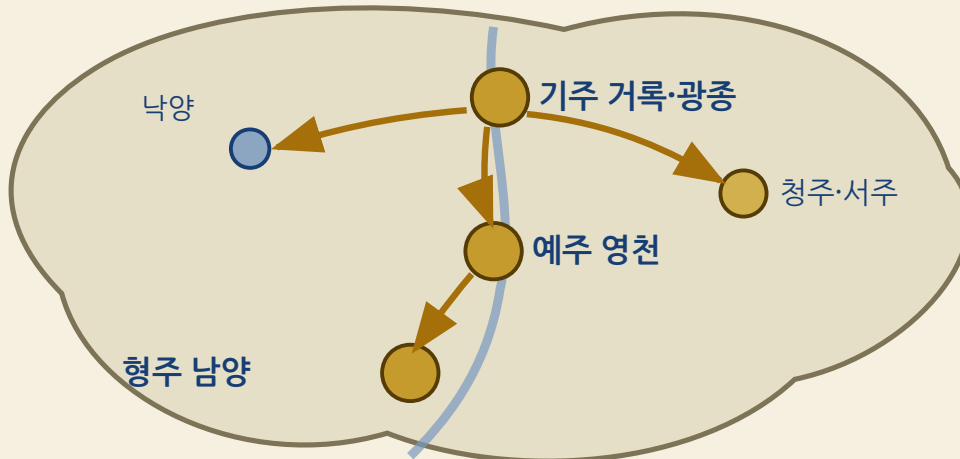
경제적으로 후한 정부는 서북 변경의 강족 전쟁, 궁정 비용, 군사 동원, 관리체계 유지에 큰 부담을 지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토지와 조세 부담의 불균형, 채무, 호족(豪族)·대토지 소유자의 성장, 소농(小農)의 몰락이 겹쳤다. 그러나 ‘대토지 소유 확대 → 농민 빈곤 → 반란’이라는 직선적 설명은 오늘날 충분하지 않다. 자연재해, 전염병, 흉작, 강제 이주, 치안 붕괴가 사람들을 고향의 호적·촌락 관계에서 이탈시켜 유민(流民)과 도적 집단을 늘렸고, 이 이동 인구가 종교적 치료와 상호부조 네트워크에 흡수되었다.

최근 일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해 그 자체보다 재해를 처리하는 행정능력의 저하이다. 사메지마 히로키(鮫島玄樹)는 후한 후반 도적에 대한 사면(赦免)과 지방관의 ‘수습’이 점차 일반화되었으나, 빈곤·재해·관리 부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면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더욱이 원래 황제의 권한인 용서와 귀순 수용을 지방장관이 사실상 행사하게 된 점은 중앙 권력의 지방 분산을 보여준다.^[2]

3. 장각, 태평도, 36방(方)의 조직

『후한서』는 장각을 기주 거록(鉅鹿) 출신으로 기록하고, 그가 ‘대현량사(大賢良師)’를 자칭하면서 부수(符水), 주문, 참회(首過)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했다고 전한다. 치료는 의학적 행위만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도덕적·우주론적 부조화로 설명하고, 개인의 고통을 새 질서에 대한 집단적 기대와 연결하는 의례였다. 장각은 신도를 36방(三十六方)으로 나누고 큰 방에는 만여 명, 작은 방에는 6~7천 명을 두었다고 한다. 이 숫자는 과장 가능성이 크지만, 최소한 지역별 지도자와 통신망을 갖춘 광역 조직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봉기는 본래 갑자년인 184년 3월 5일에 맞춰 계획되었다고 전해진다. 낙양 내부의 마원의(馬元義)가 형주·양주의 신도 수만 명을 집결시키고 환관 봉서(封諫)·서봉(徐奉)과 내통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제자 당주(唐周)의 밀고로 계획이 드러나며 일정이 앞당겨졌다. 장각은 ‘천공장군(天公將軍)’, 장보는 ‘지공장군(地公將軍)’, 장량은 ‘인공장군(人公將軍)’을 칭했다. 천·지·인의 삼재 구조는 종교적 권위와 군사 지휘를 결합한 명명법이었다.



※ 실제 행정경계를 재현한 지도가 아니라 주요 거점과 동원 방향을 보여주는 연구용 개념도.

그림 1. 184년 황건 봉기의 주요 공간. 최초의 조직적 중심은 기주·예주·형주에 있었고, 이후 ‘황건’ 명칭을 사용하는 집단은 청주·서주·관중 등으로 확산되었다.

4. “창천이사 황천당립”의 의미

蒼天已死 黃天當立 歲在甲子 天下大吉

창천은 이미 죽었고 황천이 마땅히 일어날 것이다. 해는 갑자에 있으니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이 구호는 세 층위로 해석된다. 첫째, **왕조교체의 정치언어**이다. ‘창천’은 기존 후한 질서를, ‘황천’은 새 정통을 상징한다. 둘째, **오행·색채·천명론**의 언어이다. 황색은 토덕(土德)과 연결되어 한의 덕운을 대체하는 새로운 우주질서를 뜻할 수 있다. 셋째, **태평과 갱신의 종말론**이다. 갑자는 60간지 순환의 시작이므로 시간의 재기동, 질병과 부정의 정화, 천하대길의 개막을 알린다.

다만 후쿠이 시게마사(福井重雅)는 이를 추상적인 오행설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청주·서주, 즉 옛 제(齊) 지역의 종교·유희(遊俠)·방사 전통과 연결했다. 이 관점에서 황색은 중앙에서 설계된 하나의 교리표지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축적이 태평도 언어와 결합한 결과다.^[3] 따라서 구호는 단순한 ‘한 왕조 타도’ 표어가 아니라 우주론, 치료, 달력, 지역전통, 정치적 정통성이 압축된 동원 장치였다.

5. 진압과 장기적 여파

중앙정부는 당고 금고를 해제해 명사층의 협력을 구하고, 하진(何進)을 대장군으로 삼아 수도 방위를 강화했으며, 노식(盧植)·황보숭(皇甫嵩)·주준(朱儁)을 파견했다. 황보숭은 화공과 야습을 사용해 영천 세력을 격파했고, 노식·동탁·황보숭이 기주 전선을 이어받았다. 장각은 전투 도중 병사했고 장량·장보도 패사했다. 남양의 완성 전투는 185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진압’은 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제거하지 못했다. 백파(白波), 흑산(黑山), 청주황건(青州黃巾) 등 여러 집단이 180년대 후반부터 190년대에 활동했고, 192년 조조는 청주황건의 항복을 받아 정예를 ‘청주병(青州兵)’으로 편성했다. 『삼국지』 무제기는 항복 병사 30여만과 남녀 100여만을 기록하지만, 일본 연구자들은 이 수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대규모 인구집단의 군사·생산 조직 편입을 강조하는 서술로 읽는다. 황건 진압은 국가가 군대를 회수한 사건이 아니라, 중앙의 군사권이 지방 지휘자·호족 연합·사병 조직으로 이전되는 과정이었다.

② 일본 학계의 시대별 연구사

1. 메이지 시대: 동양사학의 성립과 왕조정치사적 위치 설정

메이지기의 일본 동양사학은 서구 역사학의 문헌비판과 청대 고증학을 결합하면서 중국사를 독립 학문으로 제도화했다. 이 시기 황건만을 다룬 전문 논문은 많지 않았다. 통사와 강의에서 황건은 보통 환관정치, 당고의 금, 지방 반란, 후한 멸망을 연결하는 사건으로 서술되었다. 핵심 관심은 민중의 주체성보다 왕조의 흥망, 제도와 정치 엘리트, 사료의 문헌적 신뢰성이었다.

따라서 메이지기 해석을 후대의 ‘농민혁명론’으로 소급해서는 안 된다. 당시의 공헌은 『후한서』 『삼국지』 『자치통감』을 대조하고 지명·연대·인물관계를 정리한 기초 사료학이었다. 한계는 정사(正史)의 국가 중심 언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태평도를 ‘요적(妖賊)’·미신·왕조질서 교란으로 묘사하기 쉬웠다는 점이다.

2. 전전 제국기: 제도사·토지사·국가질서와 ‘전환기’의 문제

1910~1945년 일본의 중국고대사 연구는 국가구조, 토지제도, 관료제, 귀족제 성립에 집중했다. 황건은 후한의 중앙집권이 무너지고 위진 귀족제 사회로 이행하는 전환점으로 배치되었다. 당시의 ‘동양사’는 제국 일본의 학술제도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의 통합과 지방질서의 해체라는 문제를 중시했고, 민중종교는 종종 국가에 대립하는 비정통적 신앙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전전 연구를 단순한 제국주의 사학으로만 규정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고증적 사료비판, 한대 제도·토지·호족 연구, 위진남북조 귀족제의 기원 탐색은 전후 논쟁의 토대를 제공했다. 특히 후한 말-위진의 사회변동을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으로 묻는 문제들은 전후 마르크스주의와 교토학파의 공동체론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게 한 공통 질문이었다.

3. 전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전성기: 계급투쟁과 농민전쟁

패전 후 일본 역사학에서는 사회구성체론, 계급관계, 생산양식, 민중의 역사적 역할이 중심 주제가 되었다. 중국의 진승·오광, 녹림·적미, 황건, 수말 농민반란, 황소, 송대 방랍, 명말 이자성 등을 ‘농민반란(農民反乱)’ 또는 ‘농민전쟁(農民戰爭)’의 장기 계보로 묶는 연구가 활발했다. 목촌정웅(木村正雄)의 『中国古代農民叛乱の研究』은 이 흐름을 대표하는 집대성이다.^[4]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은 황건을 지배계급의 수탈과 토지집중에 맞선 소농·빈농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했고, 종교적 외피는 계급적 요구가 표현된 역사적 형태로 보았다. 또한 후한 말의 위기를 고대 노예제·전제국가에서 봉건적 대토지소유·중세 귀족제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모순과 연결했다. 이 틀은 황건을 국가사 주변의 ‘도적’이 아니라 역사변동의 주체로 복권한 결정적 공헌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전후 연구는 하나의 정통 마르크스주의로 통일되지 않았다. 가와카쓰 요시오(川勝義雄)의 「漢末のレジスタンス運動」은 경제적 계급범주만으로 환원하기보다 지역공동체의 도덕적 자율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다.^[5] 다다 겐스케(多田隼介)는 「黄巾の乱前史」에서 184년 이전의 요무·요적·종교적 반란을 추적하여 황건이 갑자기 생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랜 종교·사회운동의 축적임을 밝혔다.^[6]

4. 1980년대 이후: 사회사·지역사회론·다층적 행위자

1980년대 이후에는 거대 이행모델보다 지방사회(地方社会), 재지사회(在地社会), 호족·유력자, 촌락 공동체, 이동민, 군사 동원, 지역문화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확대되었다. 황건은 ‘전국 농민계급’의 단일 운동이 아니라 각지의 경제·문화·정치 조건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띤 연합적 현상으로 재해석되었다.

이 변화의 전조는 이미 1960~70년대에 나타났다. 후쿠이 시게마사는 청·서주의 전통을, 마쓰자키 쓰네키는 환관과의 정치적 관계를, 오부치 닌지(大淵忍爾)는 태평도와 오두미도를 초기 도교 교단의 형성이라는 시야에서 비교했다. 1980년대 이후 이 논점들이 결합하면서 ‘경제적 불만을 종교가 포장했다’는 위계적 설명은 약해지고, 종교·지역·정치·군사 네트워크가 상호 구성적이라는 관점이 강해졌다.

5. 최근 연구: 종교사·환경사·행정사·네트워크의 결합

2000년대 이후 일본 연구는 태평경(太平經), 치병 의례, 참회, 종말론, 초기 천사도(天師道)의 교단제도, 지역 신앙을 보다 자율적인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동시에 재해·역병·빈곤·유민화가 중앙과 지방의 행정능력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도적’의 귀순과 사면이 어떤 정치적 협상이었는지를 분석한다. 사메지마의 2023년 논문은 이러한 행정사적 전환을 잘 보여준다.

네트워크론은 아직 일본 황건 연구의 완성된 주류라기보다 유망한 방향이다. 36방을 조직도처럼 고정적으로 이해하는 대신, 치료자·환자, 장시와 교통로, 친족·동향, 지방관속, 환관, 군사 지도자 사이의 연결망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다. 향후 묘지명·간독·고고자료·GIS를 결합하면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동과 동원의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시기	지배적 질문	황건의 대표적 규정	장점	한계
메이지	후한은 왜 멸망했는가	왕조말의 대반란	기초 연대·사료 정리	국가 중심, 민중·종교의 타자화
전전	고대국가와 귀족제는 어떻게 전환되는가	제도 해체의 징후	토지·관료·호족 구조 분석	제국적 질서관, 지역 민중의 비가시화
전후 1950~70년대	계급투쟁과 사회구성체 이행	종교적 농민전쟁·민중저항	민중을 역사 주체로 복권	경제결정론·단일계급화 위험
1980년대 이후	지역사회와 다층 행위자는 어떻게 결합했는가	지역질서의 재편 운동	지역차·호족·유민·종교의 결합	전국적 구조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음
최근	재해·질병·행정·네트워크는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	복합위기의 네트워크형 정치운동	종교·환경·행정의 통합	자료 부족과 정량화의 한계

③ 주요 해석과 학설

1. 농민반란론(農民反亂論)과 농민전쟁론(農民戰爭論)

농민반란론은 황건의 사회적 토대를 토지에서 밀려난 소농, 빈농, 유민으로 파악한다. 국가 조세와 부역, 호족의 토지집중, 채무와 재해가 생존 위기를 만들었고, 태평도는 흩어진 불만을 전국적 운동으로 조직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점에서 황건은 후한 국가와 지주·호족 질서에 대한 계급적 저항이며, 184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대사회의 모순을 폭발시킨 ‘농민전쟁’이다.

이 설명은 민중의 물질적 조건을 분명히 하고, 정사가 ‘도적’으로 비하한 집단을 역사주체로 재해석한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비판도 크다. 첫째, 참가자 전부를 동일한 ‘농민계급’으로 묶기 어렵다. 장각의 종교지도자, 마원의과 수도 내 연결자, 환관 주변 인물, 지방의 협력자, 군사적 위협집단은 서로 다른 이해를 지녔다. 둘째, 184년 이후 ‘황건’으로 불린 집단의 조직적 연속성이 불확실하다. 셋째, 죽음과 희생을 감수한 집단행동을 단순한 경제불만으로 환원하면 치병·참회·우주론·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2. 종교운동론(宗教運動論)과 천년왕국론(千年王國論)

종교운동론은 태평도의 치료와 신앙, 36방 조직, 갑자년의 시간관, 천공·지공·인공장군의 종교적 권위에 주목한다. 여기서 ‘종교’는 계급요구의 가면이 아니라 신뢰를 생산하고 낮은 사람을 연결하며 질병과 재해를 설명하고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회기술이다. 미쓰이시 켄키치(三石善吉)는 황건을 도교적 천년왕국 운동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여, 현세의 완전한 갱신과 ‘태평’의 도래라는 기대를 강조했다.^[7]

다만 태평도 교리와 현존 『태평경』의 직접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후한서』 양해전은 우길(于吉)이 얻었다는 『태평청령서(太平淸領書)』를 언급하지만, 오늘날의 『태평경』 텍스트는 후대 편집을 거쳤다. 일본 종교사 연구는 이 간극을 인정하면서도, 질병을 도덕·우주질서와 결부시키고 참회와 부수를 통해 치유한다는 공통 세계관을 분석한다.

3. 민중운동론(民衆運動論)과 레지스탕스

가와카쓰의 ‘한말 레지스탕스 운동’은 황건을 단순히 생산관계의 반영으로 보지 않고, 국가권력이 공동체의 도덕경제와 생존질서를 파괴할 때 나타난 지역적 저항으로 설명했다. 여기서 ‘민중’은 순수한 빈농만이 아니라 촌락 구성원, 유민, 유협, 종교지도자, 지방 명사 등 국가 아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집단이다.

이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의 민중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경제결정론을 수정했다. 그러나 ‘공동체’가 실제로 얼마나 통합적이었는지, 공동체 내부의 지주·소농 관계와 성별·세대·노예·부곡의 차이를 낭만화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4. 지방사회 질서의 재편론

지역사회론은 황건의 발생과 진압을 동시에 본다. 봉기 이전에는 태평도의 방 조직과 이동 치료자들이 기존 행정구역을 가로질러 신도망을 만들었다. 봉기 후에는 지방관·호족·의용군 지휘자들이 자위와 진압을 위해 병력을 조직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동원권과 권위를 의존했다. 즉 황건은 국가 대 농민의 양자 대립이 아니라 **중앙정부-지방관료-호족-촌락-유민-종교조직**의 관계가 재배열되는 과정이었다.

후쿠이의 지역전통론은 청주·서주 지역의 제문화, 유협, 방사 전통이 황건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반면 기주·거록·광종 전선은 장각 지도부와 중앙조직의 핵심이었고, 예주·영천·여남은 수도권 교통과 가까운 전략지역, 형주·남양은

장기 공성전이 벌어진 독자 전장이었다. 190년대 청주황건은 184년의 본부와 달리 가족·생산인구를 포함한 대규모 이동집단으로 조조의 군사국가 형성에 편입되었다.

5. 후한 국가체제 붕괴론

황건은 후한 붕괴를 ‘일으킨’ 단일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누적된 국가능력 위기를 가시화했다. 중앙은 전국적 반란을 자체 상비군만으로 제압하지 못했고, 당고 해제와 명사층 복권, 지방군·의용군·호족 무장의 동원을 택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의 군사·재정 자율성을 키웠다.

또한 진압 과정의 인사와 군공은 새로운 정치자본이 되었다. 황보숭·주준 같은 관군 장수뿐 아니라 조조·유비·손견 등 후대 군벌이 군사경력을 쌓았다. 다만 이들이 모두 황건 진압만으로 군벌이 된 것은 아니다. 189년 영제 사후의 환관·외척 충돌, 동탁의 낙양 진입, 반동탁 연합, 주·군 단위 병력의 사유화가 이어져야 군벌체제가 성립했다.

6. 군벌 형성과 삼국시대 출발점론

‘삼국지의 시작’이라는 대중적 표현은 절반만 맞다. 황건 진압은 군사 인재와 지역 병력, 조세·군량 조달망을 성장시켰고 지방 지휘자가 민간 인구까지 보호·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특히 조조가 청주황건의 정예를 청주병으로 흡수한 사례는 반란집단이 군벌군의 핵심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그러나 184년과 220년 사이에는 36년의 복잡한 정치과정이 있으므로, 황건을 삼국시대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국가 군사권의 분권화를 가속한 구조적 출발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7.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영향과 수정

개념	황건 해석에 준 영향	후대의 비판·수정
계급투쟁론 (階級闘争論)	국가·호족의 수탈과 소농·빈농의 저항을 중심축으로 설정. ‘도적’이라는 정사 명칭을 지배계급의 낙인으로 비판.	참가자의 계층적 이질성, 궁정 연계, 종교지도자의 자율적 목표, 지역 유력자의 양면성을 반영하도록 다층 행위자 모델로 수정.
농민전쟁론 (農民戦争論)	황건을 중국사의 반복적 농민반란 계보 속에 넣고 왕조 교체·사회변동의 동력으로 평가.	‘전쟁’의 전국적 통일지휘와 일관된 계급목표가 있었는지 의문. 184년 이후 황건 명칭의 범주 확장과 지역별 차이를 구분.
고대→중세 이행론 (古代から中世への移行論)	후한 전제국가·소농민 지배가 무너지고 호족·귀족제·장원적 질서가 성장하는 전환점으로 황건을 배치.	단선적 사회구성체 단계론을 완화. 지역별 국가침투의 정도, 군사·종교·촌락 조직의 복수 경로, 위진 국가의 연속성을 함께 검토.
공동체론 (共同体論)	민중의 도덕적 유대와 지역 자율성을 국가권력에 맞선 저항의 기반으로 해석.	공동체 내부의 불평등·배제·성별 차이와 호족 지배를 분석하고, 공동체를 고정 실체가 아닌 동원 과정의 산물로 재정의.

8. 태평도와 오두미도의 비교

항목	태평도(太平道)	오두미도(五斗米道)·천사도(天師道)
창도자·지역	장각 형제, 기주를 중심으로 화북·중원 광역 확산	장릉(張陵) 계통, 장로(張魯), 파촉·한중
핵심 실천	부수·주문·참회·집단 치병, 36방	치병·참회, 의사(義舍), 제구(祭酒) 조직, 호적·교단행정
정치형태	184년 동시 봉기, 천·지·인 장군, 왕조 교체적 구호	한중에서 장기간 지역정권 운영, 조조에게 항복 후 제도 일부 보존
국가와 관계	단기간 전면 충돌과 분산적 후속 집단	교단과 행정이 결합된 지속적 협상·자치
일본 연구의 쟁점	농민전쟁인가 종교혁명인가, 지역차·조직연속성	‘반란’으로 볼 것인가 종교적 지방정권으로 볼 것인가, 초기 도교 제도화

전후 초기에는 두 운동을 ‘종교적 농민반란’이라는 같은 범주에 놓는 경향이 강했다. 이후 연구는 태평도의 급진적 동시봉기와 오두미도의 장기적 교단행정·지역정권화를 구분한다. 공통점은 질병·죄·참회를 연결하고 종교조직이 행정과 생존 지원을 대체했다는 점이다. 차이는 국가와의 충돌 방식, 공간적 집중도, 조직의 지속성이다.

9. 사료 활용과 비판

사료	일본 연구자의 주요 활용	비판적 주의점
『後漢書』	영제기, 황보숭·주준 열전, 양해전 등을 통해 조직·전투·태평청령서·환관 연계 복원	5세기 범엽의 편찬. ‘賊’ ‘妖’ ‘蛾賊’은 국가의 분류어. 전투 숫자와 대중 규모는 과장 가능.
『三国志』	조조와 청주황건, 장로와 오두미도, 군벌 형성 분석	위 중심의 정통성 서술. 항복 규모·군공은 조조의 통치능력을 강조하는 정치적 서사.
『資治通鑑』	184년 전후 사건의 일자·순서·인물 이동을 통합 정리	11세기 편년체 재구성으로 독립적인 동시대 증언이 아님. 원사료의 선택·도덕평가를 추적해야 함.
도교 문헌	『太平經』, 초기 천사도 자료를 통해 치병·참회·우주론 분석	현전 텍스트의 편찬층과 후대 개작. 장각의 실제 교리와 직접 동일시 금지.
후대 지리지·전승	지역 기억, 사당, 지명, 제문화의 지속 탐색	후대 삼국지 서사와 민간전승의 역투사 가능성. 정사와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함.

사료론의 핵심: ‘황건’은 참가자가 스스로 사용한 정체성인 동시에 국가가 다양한 집단을 묶어 부른 행정·군사적 범주였다. 기록에 ‘황건’이라고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장각의 태평도 조직에 직접 소속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④ 핵심 연구자와 주요 문헌

아래 목록은 일본 황건 연구의 논점 변화를 실제 문헌을 통해 보여주는 핵심 사례다. 전문 논문이 희소한 메이지·전전 시기는 통사·제도사적 배경으로 다루고, 직접적인 황건 연구가 본격화한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가와카쓰 요시오(川勝義雄)

「漢末のレジスタンス運動」, 『東洋史研究』 25권 4호, 東洋史研究会, 1967, 386-413쪽. 후한 말의 민중 저항을 단순 폭동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지역사회 사이의 긴장 속 ‘레지스탕스’로 재구성했다. 이후 『六朝貴族制社会の研究』(岩波書店, 1982)에 수록되며 귀족제 성립론과 연결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민중사와 교토학파의 공동체론을 접합한 대표 연구다.^[5]

다다 겐스케(多田狷介)

「黄巾の乱前史」, 『東洋史研究』 26권 4호, 1968, 160-183쪽; 재수록 『漢魏晋史の研究』, 汲古書院, 1999, 49-76쪽. 184년 이전 후한 사회에 나타난 종교적 반란과 ‘요무·요적’ 현상을 추적해 황건을 장기 지속의 맥락에 놓았다. 황건을 갑작스러운 단일 농민폭발로 보는 설명을 수정하고 종교적 동원과 사회불안의 누적을 강조했다.^[6]

마쓰자키 쓰네코(松崎つね子)

「後漢末の宗教的農民反乱—黄巾の乱と五斗米道」, 『駿台史学』 29호, 駿台史学会, 1971, 90-107쪽. 태평도와 오두미도를 종교적 농민반란이라는 공통 문제틀로 비교했다. 이어 「黄巾の乱の政治的側面—主として宦官との関係からみて」, 『東洋史研究』 32권 4호, 1974, 435-454쪽에서 환관과의 연계를 분석하여 황건을 농민·종교 범주에만 가두지 않고 궁정 정치에 침투한 대규모 정치운동으로 평가했다.^{[1][8]}

후쿠이 시게마사(福井重雅)

「黄巾の乱と伝統の問題」, 『東洋史研究』 34권 1호, 1975, 24-57쪽. 청주·서주의 옛 제 지역에 축적된 종교·방사·유협 전통을 황건의 지역적 성격과 연결했다. 전국적 계급투쟁론의 균질성을 비판하고 지역문화의 장기 지속을 제시했다. 대중적 인물론으로 「張角—『黄巾の乱』を率いた太平道の教祖」, 『月刊しにか』 11권 10호, 大修館書店, 2000, 22-25쪽도 있다.^{[3][9]}

오부치 닌지(大淵忍爾)

『黄巾の乱と五斗米道』, 『岩波講座 世界歴史5 古代5 東アジア世界の形成II』, 岩波書店, 1970. 황건과 오두미도를 초기 도교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위기라는 공동 시야에서 해설한 영향력 있는 개설이다. 정치사·사회사·종교사를 연결하여 전후 일본의 표준적 이해를 형성했다.^[10]

목촌정웅(木村正雄)

『中国古代農民叛乱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9, 487쪽+색인 17쪽. 진한부터 고대 중국의 반란을 사회경제 구조와 농민전쟁의 계보 속에 분석한 전후 일본 마르크스주의 농민사 연구의 집대성이다. 황건은 전제국가의 소농민 지배가 붕괴하고 호족적 질서가 성장하는 모순의 표현으로 자리매김된다.^[4]

다니가와 미치오(谷川道雄)·모리 마사오(森正夫) 편

『中国民衆叛乱史1 秦～唐』, 平凡社〈東洋文庫336〉, 1978. 정사 속 반란 관련 사료를 번역·배열하고 해설하여 전문연구와 대중적 사료 접근을 연결했다. ‘민중반란’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의 반역 서사를 넘어 민중의 집단행동을 장기 중국사 속에 위치시키려는 전후 역사학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11]

미쓰이시 젠키치(三石善吉)

『中国の千年王国』, 東京大学出版会, 1991. 황건을 ‘도교적 천년왕국’의 대표 사례로 다루고, 대승의 난·태평천국·의화단 등 중국사의 구원운동과 비교했다. 계급투쟁의 종교적 외피가 아니라 현세 갱신과 완전사회에 대한 종교정치적 기대를 분석 중심에 놓았다.^[7]

쓰유무 게이스케(露無啓介)

『曹操と青州黄巾の関係について』, 『東洋史訪』 2호, 兵庫教育大学東洋史研究会, 1996, 87-91쪽. 청주황건과 조조의 관계를 정치적 목적과 군단 편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반란 진압이 군벌국가의 병력·인구 통합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경로를 분석했다.^[12]

후지타 다다시(藤田忠)

『後漢時代の妖巫の乱と妖賊の乱について』, 『国史館史学』 6호, 国史館大学, 1998. 후한 정사에 등장하는 ‘요무’와 ‘요적’을 유형화하여 종교적 지도자·예언·치병·왕호 참칭이 황건 이전부터 반복되었음을 고찰했다. 국가의 ‘요(妖)’ 분류가 종교와 정치 범죄를 결합하는 방식도 드러낸다.^[13]

사메지마 히로키(鮫島玄樹)

「後漢後半期における盜賊の収拾と赦免」, 『東洋學報』 105권 1호, 東洋文庫, 2023, 1-28쪽. 안제 이후 늘어난 도적에 대한 중앙의 사면과 지방장관의 귀순 수용을 분석한다. 자연재해·빈곤·관리 부패로 사면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지방관이 황제의 용서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게 된 과정을 통해 후한 국가능력의 변화를 설명한다.^[2]

연구 계보를 읽는 방법

이 문헌들은 서로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 목촌의 계급구조는 왜 대규모 불만이 존재했는지를, 다다의 전사는 종교적 반란의 장기 누적을, 마쓰자키의 정치측면은 궁정과의 연결을, 후쿠이의 지역전통은 공간적 차이를, 가와카쓰의 공동체론은 저항의 도덕적 기반을, 사메지마의 사면 연구는 국가 대응의 변화를 설명한다. 가장 생산적인 독해는 이들을 경쟁적 ‘정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과 수준을 다루는 모델로 결합하는 것이다.

⑤ 중국·한국·서구 학계와의 비교

1. 중국 학계와 일본 학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정통 서술은 황건기의를 ‘봉건 지주계급과 동한 왕조에 맞선 대규모 농민전쟁’으로 높이 평가했다. ‘黃巾起義’라는 용어는 ‘亂’보다 정당성을 부여하며, 계급투쟁과 왕조 쇠망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문화대혁명 전 후에는 장각의 혁명성과 농민전쟁의 규모가 특히 부각되었고, 종교는 농민의 정치의식이 표현된 형태로 처리되기 쉬웠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연구도 교리·태평경·민간신앙·지역사회·재해·인구이동·군사조직으로 다변화했다. 일본 연구와의 차이는 용어 정치와 국가서사의 강도다. 일본은 전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亂’이라는 전통 명칭을 유지하며 농민 전쟁론을 지역공동체·종교사로 일찍 수정했다. 중국은 대규모 자료 축적과 지역 고고학에 강점이 있으나, ‘농민기의’의 정당성 서사가 해석의 전제를 만들 수 있다.

2.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

한국의 후한 말 연구는 중국·일본 연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환관·외척·당고, 지방 호족, 군벌 형성, 삼국시대 전환을 정치사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는 영제기의 재정위기, 자연재해, 유민, 군역과 조세, 국가 구휼능력의 약화를 연결하는 사회경제사적 분석이 확대되었다. 한국 대중서술에서는 황건이 삼국지의 서막으로 제시되는 비율이 높아 군벌 형성의 직접 계기로 강조되지만, 전문 연구는 장기 후한사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더 중시한다.

일본 학계의 비교우위는 1960~70년대부터 축적된 세밀한 일본어 논문, 중국 정사 문구의 고증, 위진 귀족제 성립론과의 연결, 초기 도교 연구의 깊이다. 한국 연구는 중국의 최신 지역자료와 일본의 고전 연구를 중개하고, 한반도 주변의 후한-삼국 교류사와 비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국 모두 일반 독자에게는 ‘농민반란’ 또는 ‘삼국지의 시작’이라는 압축된 설명이 전문 연구의 복합성을 가리는 문제가 있다.

3. 서구 학계와 일본 학계

서구 연구는 황건을 Later Han state collapse, early Daoism, millenarian movement, healing cult, social banditry, regional militarization과 연결한다. 라페 드 크레스피니(Rafe de Crespigny)는 후한 말 정치·군사 연대기와 지방 군벌의 성장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바버라 헨드리슈케(Barbara Hendrischke)는 『태평경』의 사상과 초기 도교의 형성을 분석한다. 서구의 ‘millenarianism’ 개념은 황건의 현세적 구원과 시간의 갱신을 비교종교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일본 연구는 한문 정사와 중국 전통 주석을 세밀하게 읽고, 제·청서 지역의 장기문화와 위진 귀족제 이행에 연결하는 데 강하다. 서구 연구는 국가형성·종교사회학·비교혁명론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영어권의 폭넓은 비교사로 확장하는 데 강점이 있다. 차이는 상호보완적이다. 일본의 ‘공동체(共同体)’와 서구의 ‘local society/network’는 유사하지만, 전자는 도덕적·역사철학적 의미가 강하고 후자는 관계망과 제도적 연결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교 항목	일본 학계	중국 학계	한국 학계	서구 학계
대표 명칭	黄巾の乱, 민중반란, 종교운동	黄巾起義, 농민전쟁	황건적의 난/황건의 난	Yellow Turban Rebellion/ Uprising
전통적 중심	사료고증, 사회구성체, 공동체, 지역사회	계급투쟁, 농민기의, 왕조 교체	후한 정치위기, 호족·군벌, 삼국 전환	국가붕괴, 초기 도교, 천년왕국·군사화
최근 경향	종교·행정·재해·사면·네트워크	지역 고고학, 민간종교, 생태·인구	재정·재해·유민, 동아시아 비교	종교사회사, 연결망, 환경·질병사
강점	한문 원전의 세밀한 비판, 장기 연구축적	지역자료·고고자료의 규모	중·일 연구의 통합과 정치사적 명료성	비교개념, 국가·종교 이론화
위험	전후 이론틀의 지속, 일본어권 폐쇄성	정통 ‘기의’ 서사의 규범성	삼국지 서막 중심의 목적론	서구 개념의 과도한 투사, 원전 거리

4. 공통점과 실질적 차이

네 학계 모두 오늘날 황건을 단순한 도적집단으로 보지 않고 후한의 복합위기와 연결한다. 차이는 어떤 인과를 우선하는가에 있다. 중국은 계급·농민기의의 정당성을, 일본은 사료고증과 지역사회·고대·중세 이행을, 한국은 정치체제 붕괴와 군벌·삼국 전환을, 서구는 종교사회학과 국가붕괴·천년왕국 비교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강조한다. 최근에는 재해·유민·질병·행정 능력·네트워크가 공통의 접점이 되고 있다.

⑥ 종합 평가와 향후 연구 과제

1. 일본 연구의 강점

사료비판의 정밀성

『후한서』의 편찬층, 『삼국지』의 위 중심 서사, 『자치통감』의 후대 재구성을 대조하고 지명·연대·인물관계를 세밀히 확인한다.

연구들의 다원성

농민전쟁론과 종교사, 공동체론과 지역전통론, 정치사와 군벌형성론이 경쟁하면서 단일 원인론을 지속적으로 수정했다.

한말-위진 연속성

황건을 184년의 사건에 가두지 않고 귀족제, 지방군사화, 조조정권, 초기 도교의 형성과 연결한다.

2. 한계와 논쟁점

- **메이지-전전 연구의 직접성 문제:** 전문 황건 연구가 적은 시기를 후대의 학설로 과도하게 체계화하면 안 된다. 이 시기는 주로 통사적 배치와 제도사적 질문의 형성기로 이해해야 한다.
- **계급범주의 과잉 일반화:** ‘농민’이 실제로 자작농·소작인·유민·병사·무장집단·종교지도자를 모두 설명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 **공동체의 낭만화:** 지역공동체를 국가에 맞선 윤리적 단일체로 보면 내부의 호족 지배, 성별 분업, 노비·부곡·이주민 배제를 놓칠 수 있다.
- **종교 텍스트의 시간차:** 현존 『태평경』과 장각의 실제 설교를 동일시하는 위험, 오두미도 후대 자료를 2세기에 소급하는 위험이 있다.
- **‘황건’ 범주의 확장:** 184년 태평도와 후대 청주·백파·흑산 집단의 연속성을 실증하지 않고 하나의 운동으로 묶는 문제가 남는다.
- **성별과 가족의 부재:** 청주황건 기록은 남녀 백만이라는 가족집단을 말하지만, 여성의 종교·생산·이동 역할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 **일본어권 연구의 국제적 비가시성:** 1960~70년대의 중요한 성과가 영어·한국어·중국어 연구에 충분히 번역·대화되지 못했다.

3. 향후 연구 과제

과제	구체적 연구방식	기대효과
재해·질병의 계량화	『후한서』 오행지·제기·열전의 재해·역병·곡가·사면 기록을 연도·군국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재해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일반론을 행정대응·시간지연과 함께 검증
36방 네트워크 복원	인명·지명·교통로·장사·치병 전승을 GIS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결	중앙집권적 교단인가 느슨한 연합인가를 실증적으로 판별
황건 명칭의 계보학	184~220년 정사에서 ‘黃巾’ ‘黃巾余黨’ ‘賊’의 용례를 사건별로 코딩	조직 연속성과 국가의 범주화 전략을 구분
가족·젠더·생산	청주황건의 ‘男女百餘萬口’, 포로·이주·둔전·혼인·부양관계 분석	군사집단을 넘어 이동 사회와 생존경제를 복원
지방관의 협상정치	토벌·귀순·사면·구휼을 지방관 개인의 경력·군현 재정과 결합 분석	후한 국가 붕괴를 ‘부재’가 아니라 권한 재배치의 과정으로 설명
비교 종교운동	오두미도, 서진·북위의 종교반란, 태평천국, 지중해권 천년왕국 운동과 제한적 비교	‘천년왕국’ 개념의 유용성과 중국적 특수성을 동시에 점검
동아시아 연구사 번역	다다·마쓰자키·후쿠이·가와카쓰 핵심 논문의 중·한·영 번역과 주석판	일본 연구의 국제적 재평가와 학제간 대화 촉진

4. 최종 규정

종합적으로 황건적의 난은 후한 말의 재정·토지·재해·행정 위기 위에서 태평도의 치병·참화·갑자 갱신론이 신뢰와 조직을 제공하고, 소농·유민·병사·유협·지역유력자·일부 궁정 인맥이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결합한 **다중심적 종교·사회·정치 운동**이었다. 184년의 군사적 패배는 운동의 즉각적 종결을 뜻하지 않았으며, 진압과 귀순·편입 과정은 지방 군사권과 인구통제권을 재편하여 후한 국가의 분권화와 군벌정치의 성장을 가속했다.

일본 학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 사건을 ‘농민반란인가 종교운동인가’라는 양자택일에서 벗어나게 한 데 있다. 농민의 생존위기, 종교의 자율적 의미, 지역문화, 국가행정, 군사조직의 변화를 서로 다른 층위의 인과로 결합할 때 황건은 후한 말의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중국 고대국가가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로 이동하는 과정의 복합적 지표로 보인다.

- [1] 松崎つね子, 「黄巾の乱の政治的側面—主として宦官との関係からみて」, 『東洋史研究』 32권 4호, 東洋史研究会, 1974, 435-454쪽. 황건의 궁정·환관 연계를 통해 사건의 정치운동적 성격을 논증한다.
- [2] 鯨島玄樹, 「後漢後半期における盜賊の収拾と赦免」, 『東洋学報』 105권 1호, 東洋文庫, 2023, 1-28쪽. 자연재해·빈곤·관리 부패 속에서 사면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지방관의 수습 권한이 확대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 [3] 福井重雅, 「黄巾の乱と伝統の問題」, 『東洋史研究』 34권 1호, 東洋史研究会, 1975, 24-57쪽. 청·서주 지역의 제문화와 종교·유협 전통을 강조한다.
- [4] 木村正雄, 『中国古代農民叛乱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9, 487쪽 및 색인 17쪽. 중국 고대 농민반란을 계급·사회구성체 변동의 장기 계보로 정리한다.
- [5] 川勝義雄, 「漢末のレジスタンス運動」, 『東洋史研究』 25권 4호, 東洋史研究会, 1967, 386-413쪽; 재수록 『六朝貴族制社会の研究』, 岩波書店, 1982.
- [6] 多田狷介, 「黄巾の乱前史」, 『東洋史研究』 26권 4호, 東洋史研究会, 1968, 160-183쪽; 재수록 『漢魏晋史の研究』, 汲古書院, 1999, 49-76쪽.
- [7] 三石善吉, 『中国の千年王国』, 東京大学出版会, 1991, 특히 황건을 ‘도교적 천년왕국’으로 다룬 장. 총 258쪽.
- [8] 松崎つね子, 「後漢末の宗敎的農民反乱—黄巾の乱と五斗米道」, 『駿台史学』 29호, 駿台史学会, 1971, 90-107쪽.
- [9] 福井重雅, 「張角—『黄巾の乱』を率いた太平道の敎祖」, 『月刊しにか』 11권 10호, 大修館書店, 2000, 22-25쪽.
- [10] 大淵忍爾, 「黄巾の乱と五斗米道」, 堀敏一 외, 『岩波講座 世界歴史5 古代5 東アジア世界の形成II』, 岩波書店, 1970. 이 권은 총 474쪽이며 해당 장은 황건·오두미도를 초기 도교와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개설한다.
- [11] 谷川道雄·森正夫 편, 『中国民衆叛乱史1 秦～唐』, 平凡社 〈東洋文庫336〉, 1978, 470쪽.
- [12] 露無啓介, 「曹操と青州黄巾の關係について」, 『東洋史訪』 2호, 兵庫教育大学東洋史研究会, 1996, 87-91쪽.
- [13] 藤田忠, 「後漢時代の妖巫の乱と妖賊の乱について」, 『国士館史学』 6호, 国士館大学, 1998.
- [14] 1차사료의 기본 대조 지점은 范曄, 『後漢書』 권8 孝靈帝紀, 권71 皇甫嵩朱儁列伝, 권30하 郎顗襄楷列伝; 陳寿, 『三国志』 魏書 권1 武帝紀, 권8 張魯伝; 司馬光, 『資治通鑑』 권58-59이다. 판본에 따라 쪽수가 달라 권·편명을 기준으로 표기했다.

참고문헌

1. 중국 1차사료

范曄,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표점본, 1965. 권8 「孝靈帝紀」, 권30하 「郎顗襄楷列伝」, 권67 「党錮列伝」, 권71 「皇甫嵩朱雋列伝」.

陳寿 撰·裴松之 注, 『三国志』, 北京: 中華書局 표점본, 1959. 魏書 권1 「武帝紀」, 권8 「張魯伝」.

司馬光,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표점본, 1956. 권58-59.

王明, 『太平經合校』, 北京: 中華書局, 1960.

2. 일본어 연구

大淵忍爾, 「黄巾の乱と五斗米道」, 『岩波講座 世界歴史5 古代5 東アジア世界の形成II』, 岩波書店, 1970.

川勝義雄, 「漢末のレジスタンス運動」, 『東洋史研究』 25(4), 1967, 386-413쪽; 『六朝貴族制社会の研究』, 岩波書店, 1982 재수록.

木村正雄, 『中国古代農民叛乱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9.

澤草敏, 「道教教団の形成—五斗米道と太平道」, 野口鐵郎·田中文雄·丸山宏·浅野春二 편, 『講座道教 第二卷 道教の教団と儀礼』, 雄山閣出版, 2000.

鮫島玄樹, 「後漢後半期における盜賊の收拾と赦免」, 『東洋学報』 105(1), 2023, 1-28쪽.

谷川道雄·森正夫 편, 『中国民衆叛乱史1 秦〜唐』, 平凡社 〈東洋文庫336〉, 1978.

多田狷介, 「黄巾の乱前史」, 『東洋史研究』 26(4), 1968, 160-183쪽; 『漢魏晋史の研究』, 汲古書院, 1999, 49-76쪽 재수록.

都築晶子(당시 표기 牧野晶子), 「後漢末道教運動の諸問題—その宗教性と政治性について」, 『名古屋大学東洋史研究報告』 2호, 1973.

露無啓介, 「曹操と青州黄巾の關係について」, 『東洋史訪』 2호, 1996, 87-91쪽.

藤田忠, 「後漢時代の妖巫の乱と妖賊の乱について」, 『国史館史学』 6호, 1998.

福井重雅, 「黄巾の乱と伝統の問題」, 『東洋史研究』 34(1), 1975, 24-57쪽.

福井重雅, 「張角—『黄巾の乱』を率いた太平道の教祖」, 『月刊しにか』 11(10), 大修館書店, 2000, 22-25쪽.

松崎つね子, 「後漢末の宗教的農民反乱—黄巾の乱と五斗米道」, 『駿台史学』 29호, 1971, 90-107쪽.

松崎つね子, 「黄巾の乱の政治的側面—主として宦官との關係からみて」, 『東洋史研究』 32(4), 1974, 435-454쪽.

三石善吉, 『中国の千年王国』, 東京大学出版会, 1991.

3. 중국·서구 연구 및 비교문헌

de Crespigny, Rafe, Fire over Luoyang: A History of the Later Han Dynasty 23-220 AD, Leiden: Brill, 2016.

Hendrichske, Barbara, The Scripture on Great Peace: The Taiping jing and the Beginnings of Dao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Espeset, Grégoire, "Latter Han Religious Mass Movements and the Early Daoist Church," in John Lagerwey and Marc Kalinowski eds.,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220 AD), Leiden: Brill, 2009.

Stein, R. A., 「紀元二世紀の政治=宗教的道教運動について」, 吉岡義豊·M.スワミエ 편, 『道教研究 第二冊』, 昭森社, 1967.

4. 서지 확인에 관한 주의

일본 논문의 권·호·게재면은 NDL Search, CiNii Research 및 교토대·효고교육대·국사관대·동양문고 등 기관 리포지터리의 서지기록을 우선 사용했다. 단행본 수록 논문의 경우 초출 논문과 재수록본의 쪽수가 다르므로 양자를 구분했다. 『岩波講座 世界歴史5』의 오부치 논문처럼 온라인 서지에서 장별 정확한 쪽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임의의 쪽수를 만들지 않고 권 전체 정보만 표기했다.

문서 정보

제목: 일본 역사학계의 황건적의 난(黃巾の乱) 해석 연구사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작성일: 2026년 7월

편집 원칙: 일본어 학술용어 원어 병기, 확인 가능한 서지 중심, 1차자료와 후대 편찬물의 구분, 경제·종교·지역·정치·군사의 복합 인과 분석.

표지 삽화는 본 보고서를 위해 생성한 역사적 상상도이며, 특정 실존 인물의 고증 초상이나 고대 유물 복원도가 아니다. 본문 지도와 네트워크 그림은 사료와 연구논점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용 개념도이다.